****
> 새시대 교수법 179 한국공학교육기술학회 / 조벽 Peck Cho
> **********
>
> 원숭이 이야기
>
> 새로운 아침입니다. 새로운 시작을 코앞에 둔 오늘 날 한번 음미해 볼만한 연구
> 결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
>
> 원숭이 스무 마리를 우리 안에 가두어 두었답니다. 원숭이들은 오전 내내 아무 것
> 도 먹지 못하여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. 오후에 우리 한 가운데로 싱싱한 바나나가
> 떨어졌습니다. 원숭이들이 모두 바나나를 향해 달려갔고 서로 바나나를 먹겠다고
> 아우성을 쳤습니다. 그러나 원숭이들이 바나나를 줍는 순간 위에서 물이 쏟아 졌
> 습니다. 물벼락을 맞고 깜짝 놀란 원숭이들은 다들 손에 잡았던 바나나마저 내던
> 지고 달아났습니다.
>
> 다음 날 오후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. 바나나가 떨어지자 원숭이들은 우르르
> 달려들었고, 바나나를 줍자마자 물이 쏟아졌고, 물벼락을 맞고 혼쭐난 원숭이들
> 은 바나나를 내팽개치고 달아났습니다. 이 같은 일이 몇 일 반복되자 원숭이들은
>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바나나를 주워 먹을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.
>
> 어느 날 원숭이 한 마리가 나가고 새 원숭이가 들어 왔습니다. 오후에 바나나가
> 떨어지자 모두들 가만히 있는데 오직 새 원숭이만 신나게 바나나를 향해 달려갔습
> 니다. 그러나 다른 원숭이들이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. 새 원숭이에게 달려들어
> 물고, 뜯고, 때리고 해서 바나나를 줍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. 바나나를 잡으면
> 모두 물벼락을 맞을 테니까요.
>
> 물론 새 원숭이는 무슨 영문인지 몰랐습니다. 다른 원숭이들이 왜 모두 맛있는 바
> 나나를 외면하는지, 왜 남이 줍는 것마저 방해하는지 몰랐지만 곧 다른 원숭이들
> 을 따라 하게 되었습니다. 새 원숭이도 오후에 떨어지는 바나나를 돌덩이 보듯 하
> 였습니다.
>
> 며칠 후에 원숭이 한 마리가 또 바뀌었고, 같은 현상이 되풀이되었습니다. 시간이
> 많이 흘러 본래 있던 원숭이 스무 마리가 모두 새 원숭이로 교체되었습니다. 이
> 젠 우리 안에 물벼락을 맞아 본 경험이 있는 원숭이는 한 마리도 없게 되었습니다.
>
> 그 후에도 매일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싱싱한 바나나가 떨어 졌습니다. 원숭이들
> 은 계속해서 바나나를 주워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.... 그러나 이젠 어
> 느 원숭이도 왜 바나나를 주워 먹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.
>
>
><편집 코너>
> 경남정보대학의 요청으로 동 대학의 교수님 전원께 새시대 교수법을 보내드리게
> 되었습니다. 환영합니다. 그리고 지난 한국 방문 때에 파주공고 백광호 선생님께
> 서 제 슬라이드에 잘 못 적힌 에러를 일일이 적어 주셨습니다. 대단히 고맙습니다.
>
> ⓒ 조벽, 2002
> **********